

신규 저작권 침해유형 및 이슈

- 북튜브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 -

온라인보호부 | 김찬솔 과장

2021. 8.



북튜브(Booktube)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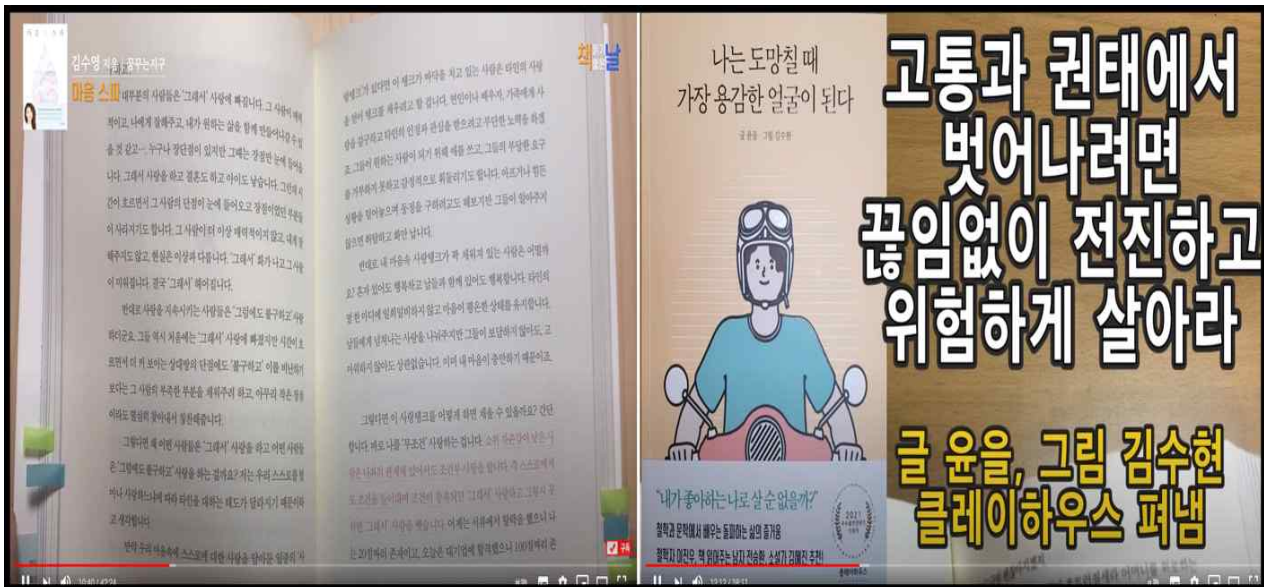


가. 북튜브 유통현황 조사

1) 북튜브(Booktube)란?

북튜브는 책을 뜻하는 단어 북(book)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YouTube)의 합성어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리거나 소개하는 등 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뜻하며, 채널을 운영하며 책을 소개하는 사람을 북튜버(Booktuber)라 한다. 북튜버는 책을 소개하거나 브이로그(V-log)¹⁾ 형식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올바른 독서 방식을 알려주기도 한다. 북튜브는 해외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폴란드바나나북스(polandbananasBOOKS)’, ‘어북유토피아(abookutopia)’ 등의 채널이 구독자 30만 명을 넘어서며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는 18만 구독자를 보유한 ‘겨울서점’이 1세대 북튜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거나 핵심을 간추려 읽어주는 북튜버의 영상을 찾는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북튜브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튜브에는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며 감상평을 전달하는 ‘서평’과 책의 본문을 직접 읽는 ‘낭독’, 특정 출판사의 책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품평하는 ‘책 하울’, 자신만의 독서 방법을 공유하는 ‘독서 루틴’ 등의 콘텐츠가 있는데, 채널 시청자는 북튜브의 다양한 영상을 보며 정보를 얻고 북튜버나 다른 구독자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을 구매한다. 또한, 독서의 필요성을 잘 알지만, 실제 여러 여건으로 책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시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독서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 [그림] 유튜브의 북튜브 채널 콘텐츠 영상²⁾



1)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가리킨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 출처: 북튜브 ‘책읽기좋은날’, ‘책한민국’

2) 북튜브 저작권 침해

북튜브는 바쁜 일상생활로 점차 줄어드는 독서량³⁾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출판업계에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기 북튜버에게 신간을 소개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맡기거나 출판사 자체적으로 북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튜브의 인기 상승과 동시에 어문저작물인 책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북튜버는 책을 소개하거나 다루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게 설령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어문저작물인 책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 즉 좋은 책을 쓴 작자에 대한 기본 예의이며 책이 공개되기까지 노력한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출판사는 사전 동의를 구한 북튜버에게 책 소개와 본문의 일부분 낭독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하고 있지만, 출판사의 동의 없이 책의 전문을 낭독하는 북튜브도 있어 저작권 침해 피해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유튜브에서 운영되는 북튜브 채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나. 북튜브 채널 운영 현황 분석

1) 북튜브 채널 현황

북튜브 모니터링 조사 결과⁴⁾에 따르면 유튜브 내 북튜브 채널은 총 376개로 전문 채널 282개(75%), 일반 채널 72개(19%), 출판사/도서관 운영 채널 20개(5%), 기타(방송사) 2개(1%)로 나타났다. 구독자 수는 일반 채널이 521만 명, 전문 채널이 445만 명, 기타(방송사) 76만 명, 출판사/도서관 69만 명 순이며, 콘텐츠 수는 전문 채널 3.1만 건, 출판사/도서관 1.4만 건, 일반 채널 1.3만 건, 기타(방송사) 3천 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 [표] 북튜브 채널 현황

구분	전문 채널	5) 일반 채널	출판사/도서관	기타(방송사)	합계	
채널 수	282	72	20	2	376	
비율	75%	19%	5%	1%	100%	
구독자 수	4,453,600	5,217,978	699,661	762,300	11,133,539	
콘텐츠 수	31,751	13,374	14,527	3,620	63,272	
콘텐츠 재생 시간	30분 이상	124	23	5	-	152
	10분~20분	71	24	4	1	100
	10분 이하	87	25	11	1	124

3) 성인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6.1권으로 17년 대비 2.2건 감소한 수치로 나타남('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체부)

4) 북튜브 모니터링은 보호원 청년 재택 모니터링단 8명이 북튜브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 조사('21. 6. 1. ~ 15.까지 총 15일)

5) 전문 채널은 채널의 주 콘텐츠가 책인 경우이며, 일반 채널은 주 콘텐츠가 ASMR 등이나 책 낭독 영상이 포함된 채널을 뜻함

2) 저작권 이용 허락 현황

북튜브 채널의 어문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합법성 여부는 콘텐츠 영상에 저작권사의 이용허락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유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하 내용에서는, 편의상 어문저작물 이용허락이 있는 채널을 '합법 채널', 없는 채널을 '불법 채널'로 하여 설명한다.⁶⁾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북튜브 채널 376개 중 합법 채널은 116개(30%), 불법 채널은 258개(69%), 저작권 없음(창작)⁷⁾은 2개(1%)로 나타났다.

●●● [표] 저작권 이용 허락 현황

구분	합법	불법	저작권 없음
건	116	258	2
비율	30%	69%	1%

채널 유형별 조사 결과 전문 채널 282개 중 202개(71%), 일반 채널 72개 중 55개(76%), 출판사/도서관 20개 중 1개(5%)가 불법 채널로 나타났으며, 기타(방송사) 채널에서는 불법 채널이 확인되지 않았다.

●●● [표] 채널 유형별 저작권 이용 허락 현황

채널 유형		전문 채널		일반 채널		출판사/도서관		기타(방송사)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저작권 이용 허락	합법	79	28%	16	22%	19	95%	2	100%
	불법	202	71%	55	76%	1	5%	-	-
	저작권 없음	1	1%	1	2%	-	-	-	-
합계		282	100%	72	100%	20	100%	2	100%

도서 유형은 일반도서와 동화책, 기타(전부)⁸⁾로 구분하였으며, 일반도서 261개 중 155개(59%), 동화책 103개 중 98개(95%) 기타(전부) 12개 중 5개(3%)가 불법 채널로 확인되었다.

●●● [표] 도서 유형별 저작권 이용 허락 현황

도서 유형		일반도서		동화책		기타(전부)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저작권 이용 허락	합법	104	40%	5	5%	7	58%
	불법	155	59%	98	95%	5	42%
	저작권 없음	2	1%	-	-	-	-
합계		261	100%	103	100%	12	100%

낭독 범위는 책 전체를 낭독하는 전문 낭독과 일부분을 낭독하는 부분 낭독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문 낭독 163개 중 133개(82%), 부분 낭독 213개 중 125개(59%)가 불법 채널로 확인되었다.

6) 설명의 편의상 위와 같이 칭하나, 구체적으로는 저작물 이용허락이 없는 영상물이 있는 채널이라고 하여 해당 유튜브 채널 자체가 불법 채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인해서는 안 된다.

7) 자신이 창작한 소설을 낭독 및 텍스트 공개하는 채널로 확인

8) 기타(전부)는 일반도서와 동화책 모두를 다루는 채널

●●● [표] 낭독 범위별 저작권 이용 허락 현황

낭독 범위		전문 낭독		부분 낭독	
		건	비율	건	비율
저작권 이용 허락	합법	28	17%	88	41%
	불법	133	82%	125	59%
	저작권 없음	2	1%	-	-
합계		163	100%	213	100%

3) 상위 10개 순위 채널

전문 채널 중 구독자 상위 10개는 ‘책읽기좋은날’ 34.3만, ‘따뜻한 목소리 현준’ 32.7만, ‘북올림’ 28.5만, ‘책한민국’ 25만, ‘독서연구소’ 22.9만, ‘책읽는다락방 J’ 21.8만, ‘책읽는 책도리’ 19만, ‘겨울서점’ 18.6만, ‘책읽어주는여자’ 15.6만, ‘우기부기TV’ 14.1만 순으로 확인되었다.

●●● [표] 구독자 상위 10개 순위 채널

순위	채널명	구독자 수	콘텐츠 수	이용 허락	유형
1	책읽기좋은날	34.3만	333	O	일반도서
2	따뜻한 목소리 현준	32.7만	178	O	일반도서
3	북올림	28.5만	143	X	일반도서
4	책한민국	25만	129	O	일반도서
5	독서연구소	22.9만	833	O	일반도서
6	책읽는다락방 J	21.8만	217	O	일반도서
7	책읽는 책도리	19만	255	O	일반도서
8	겨울서점 Winter Bookstore	18.6만	275	O	일반도서
9	lunar pulse 책읽어주는여자	15.6만	357	O	일반도서
10	우기부기TV	14.1만	274	X	일반도서

다. 북튜버의 저작권 침해

북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북튜버라면 저작권의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조심해야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문장을 낭독하거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등 책을 이용한 영상을 올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까? 원칙적으로는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기 전에 저자나 출판사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여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북튜브 채널은 공정이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권법 제 28조(공표된저작물의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저작물의인용을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저작자가 공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다.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경우에만 인용할 수 있다. 이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정당한 안의 범위에서 인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범위란 콘텐츠의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하고 인용하는 책이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 기준에 대하여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⁹⁾하고 있다.

◆◆◆ [그림] 출판사 문학동네 2차 저작권 이용 기준¹⁰⁾

유튜브 낭독

- 1) 유튜브의 경우, 단순 낭독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2) 책 소개 및 리뷰 등에 포함되는 낭독의 경우, 산문은 원고지 10매 이내, 시는 시집 한 권당 1편 이내로 낭독이 가능합니다.
- 3) 도서 실물이 영상에 노출되어야 하며,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을 반드시 자막 처리하여야 합니다.
- 4) 아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이메일(rights_munhak01@munha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채널명/채널 주소(URL)
 - 채널 소개
 - 사용 저작물의 제목, 단행본 제목, 저자명
 - 사용 분량(소설 및 산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매수, 시의 경우 전체 행수 및 사용 행수)
 - 콘텐츠 내용
 - 콘텐츠 발행일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을 낭독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권법상 공연이란 저작물을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낭독은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자 인 작가의 허락 없이 책을 낭독했다면 작가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영리목적이 아니며,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는 위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유튜브는 광고를 통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비영리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한 제29조는 공연권과 방송권에 관한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문제 되는 유튜브 업로드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면 결국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저작권법 제 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 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10) 출처: 출판사 문학동네 홈페이지 '2차 저작권 이용 안내'

다만, 책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독후감 형식 또는 서평 등 일부를 낭독하는 행위 등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35조의 5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새롭게 창작된 콘텐츠가 이용된 기존 저작물과는 별개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영리적 목적의 콘텐츠라면 비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비해 허용범위가 좁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 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제 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라. 시사점

최근 오프라인 서점 매출 3위인 반디앤루니스가 부도로 문을 닫는 등 국내 출판업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등을 발표하며 출판업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때 북튜브는 대중들에게 독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좋은 창구 기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인기 북튜브 채널 겨울서점이나 김미경 TV에서 소개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등 유튜브셀러¹¹⁾는 강력한 출판 마케팅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북튜버들의 저작권 인식 부족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어문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을 낭독하거나 보여주며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출판업계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기만 하면 콘텐츠 허용을 쉽게 내어주고 이용 허락 범위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이용 허락 절차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북튜버 역시 새로운 창작자로서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히 책의 전문을 낭독하는 콘텐츠는 지양해야 한다. 책을 활용해 기존 저작물과는 별개의 창조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면 북튜브와 출판업계는 서로 상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1) 유튜브가 만든 베스트셀러 [출처: 네이버 오픈 사진]